

조원창씨 박사학위 논문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는 당시 야마토(大和) 정권의 실권자였던 소가(蘇我)씨의 요청으로 588년(백제 위덕왕 35)에 백제에서 조사공(造寺工, 건축기술자), 와박사(瓦博士, 기와 굽는 장인), 화사(畫師) 등의 장인이 건너갔고, 이들은 이듬해 일본 최초의 절인 아스카데라(飛鳥寺)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백제에서 건너간 장인들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갔을까?

조원창(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책임연구원)씨의 최근 박사학위(상명대 사학과 한국미술사전공) 논문 '백제 건축기술의 대입전파(기단축조와 제와술을 중심으로)'는 단편적인 존재만 알려졌던 조사공과 와박사의 실체를 고고미술사적인 접근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스카데라에서 주로 출토되는 원형돌기식과 삼각돌기식 와당은 588년 백제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와박사들에 의해 제작됐으며 이들은 백제 도요인 부여지역에서 활동하던 장인들이었다.

아스카데라 출토 와당은 원형돌기식과 삼각돌기식 와당의 구분 없이 연판에 비해 가운데 자방을 현저히 작게 표현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는 6세기 후반 부여지역에서 유행하던 와당

“일본 최초의 절 비조사 백제 造寺工이 세웠다”



◁6세기 후반 부여 지역에서 출토된 와당(사진 왼쪽)과 7세기 초반 일본 테이린지(定林寺) 출토 와당. 연판에 비해 자방이 현격히 작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부여 출토 원형·삼각돌기식 와당과 비수 “금당 이중기단 방식 백제양식으로 봐야”

문양으로 같은 시기 공주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아스카데라의 와당은 이후 창건된 일본의 여러 사찰에 영향을 미쳐 원형돌기식 와당의 전통은 호류지(法隆寺) 테이린지(定林寺) 등에서, 삼각돌기식 와당은 사가다지(坂田寺) 등에

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스카데라의 와당이 백제의 와박사에 의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판의 수나 자방의 연차 수 등 세부 문양은 판이하게 다르다. 조 씨는 “이는 결과적으로 백제 와박사들이 와

범(瓦范)을 가져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당시 백제의 와박사들 기존 제와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무리와 새로운 제와술을 도입하려는 무리로 양분했을 때 일본에 파견된 와박사들은 기존의 보수적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안하기 위해 떠난 선구자들로 생각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 씨는 기단을 이중으로 쌓는 이중기단 방식이 고구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는 것 때문에 아스카데라 금당 양식을 고구려로 봤지만 백제 양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스카데라가 창건될 당시 고구려에서의 조사공 파견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지지 않는 반면 백제의 조사공 파견은 <일본서기> 등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아스카데라 발굴 당시에는 없었으나 최근 백제의 이중기단이 부여 능산리 절터 등 옛 사비지의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이중기단은 고구려에서 백제로 전파되었고, 이를 발전시킨 백제의 조사공들에 의해 일본에 전파되어서 아스카데라 동·서 금당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후 창건된 호류지(法隆寺), 타이호우지(大鳳寺) 등의 주요 건축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enny@buddhapia.com



불교공예(7)

화려한 꽃물결

몇 년 전, KBS TV의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본 적이 있다. 일본의 유명한 요정인 메구루가조엔(目黒雅叙園)에 보관 중이던 칠기 장식이 남아 부산에 살고 있는 전용복이라는 나전장에게 의뢰하여 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 칠기 장식은 조선 나전장이 만든 우리의 문화재였다. 나전칠기 하면 고우리의 문화재였다. 나전칠기 하면 고우리의 문화재였다. 나전칠기 하면 고우리의 문화재였다.

된다. 9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국화꽃이 위아래가 어긋난 모양으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고사리 모양의 잎이 백백하게 난 S자 모양의 넣림이 어슬을 이루고 있다. 꽃잎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꽃물결이 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13, 14세기 고려문화가 화려한 장식의 극치를 이룬다고 하지만 이처럼 섬세하게 장식된 나전의 무늬를 바라보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어떻게 조개껍질의 조각을 꿰고 다듬은 솜씨가 붓으로 그린 것보다 더 정교할 있을까? 이 합은 나전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임에 틀림없다. 송나라



◁나전국당초문경함(13세기, 일본 교토 개인소장). 고려시대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조개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함이다.

의 사신 서공(徐兢)은 12세기에 고려에 와서 당시의 풍속을 기술한 <고려도경>에서 나전칠기를 ‘세밀하고 귀하다’라고 표현하였는데, 만일 이보다 더 정교한 13, 14

나전국당초문경함 고려 대표적 칠기 조개 다듬은 솜씨 붓그림보다 더 정교

140호, 호암미술관소장이 이러한 역사를 실증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나전칠기가 화려하게 꽃피는 때는 역시 고려시대이다.

나전국당초문경함(螺鈿菊唐草文經函, 일본 교토 개인소장)은 고려시대 나전칠기를 대표하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 함은 세로 25cm, 가로 47.3cm, 높이 25cm의 아담한 크기이다. 조선시대 함과 비교해 보면 뚜껑의 모서리를 경사지게 마무리한 점이 독특한데, 이는 고려시대의 함에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징이다. 양쪽 옆구리에는 손잡이 장식이 달려있고 앞에는 자물쇠를 채우는 장치까지 보인다.

나전칠기의 묘미는 조개껍질의 작은 조각을 조합하여 빛나는 큰 형상을 이루어 내는 데 있다. 그런데 이 함의 옆면을 보면 어떤 흐름이 연속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세계 나전칠기를 보았다면 과연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해진다.

이처럼 화려하게 장식한 함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것일까? 이 의문은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나전국화문경함(12세기, 일본 중요문화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함은 앞의 나전국당초문경함과 형태 및 크기가 유사한데, 뚜껑 윗면에 나전 아담한 크기이다. 조선시대 함과 비교해 보면 뚜껑의 모서리를 경사지게 마무리한 점이 독특한데, 이는 고려시대의 함에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징이다. 양쪽 옆구리에는 손잡이 장식이 달려있고 앞에는 자물쇠를 채우는 장치까지 보인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조선실록 불교사료집 완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9년간 작업

12일 기념학술세미나

1893권에 이르는 <조선왕조실록> 중 불교 관련 기록들만 모은 <조선왕조실록 불교사료집>(전 24권)이 곧 완간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법산 스님)은 지난 97년 태조에서 중종 초까지의 기록을 13권으로 묶어 발간한 데 이어 철종 때까지의 나머지 기록을 정리한 11권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잡지 <트라이시클>(1998년)에 수록된 ‘미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상식’을 보면, 불교에 대한 무지가 생각보다 넓다. ‘Buddha’를 ‘Buddah’라고 표기하는가 하면 “모든 불자들은 대머리”이며 “사원에서 생활한다”고 알 정다. 미시간 대학에서 불교학을 가르치는 도날드 로페즈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이 씨는 “불교가 점차 뿌리내리고 있음은 여러 가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지만 미국사회에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진실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의 배불정책 등 방대한 양의 불교관계 사료를 수록하고 있어 조선불교 연구의 기초 자료. 하지만 실록 가운데 흩어져 있어 실제 연구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9년여 작업 끝에 사료집을 완간한 불교문화원장 법산 스님은 “정확한 우리말 번역과 주석을 곁들인 순한글 여주본이다”며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적은 조선불교 연구의 이정표를 세우는 새로운 자료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미국 종교학회 ‘한국불교분과’ 개설

11월 정기학술회의, 해주스님 등 주제 발표

회원 수만 8천 명이 넘는 매머드급 학술단체인 미국종교학회(AAR)에 ‘한국 불교’ 분과가 개설됐다. 불교학연구회장 주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1월 27일 “올 11월 미국 애크랜다에서 열리는 미국종교학회 정기학술회의에 ‘한국불교’ 분과가 개설돼 국내 학자 4명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중국, 일본에 비해 덜 알려진 한국불교와 사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장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자격으로 발표하거나 국제원호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학자들의 제안

으로 ‘원호학 분과’ 등이 개설된 적은 있으나 국내학회의 제안으로, 한국 불교의 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서 기대를 부풀게 한다. 비교적 잘 알려진 원호와 지불을 제외한 것도 그 같은 이유다.

해주 스님이 ‘신라 의상의 화엄법계관’을, 박경준 교수(동국대)가 ‘한국 민중 불교운동의 의의와 반성’을, 김복순 교수(동국대)가 ‘서해승이 신라불교에 끼친 영향과 특징’을, 윤원철 교수(서울대)가 성철 스님 관련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2년 합본집을 판매합니다.

현대불교신문에는 큰스님 법문, 불교사정보, 불교상식과 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바르게 신봉하려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또한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 내 용 : 2002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1년치 (350호 ~ 401호)
- ◆ 판 형 : 신문 실제 판형 그대로 (40cm×55cm)
- ◆ 구입방법 : 전화 주문 / 입금확인 후 택배 발송
- ◆ 가 격 : 60,000원 (정기독자 발송비 무료)
- ◆ 입금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국 민 245-25-0001-461
 - 우 리 082-03951-01-201
 - 농 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구입문의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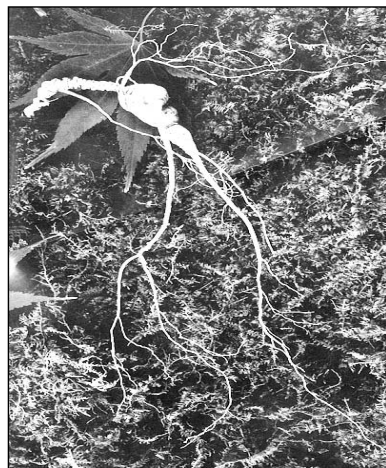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 蔘 長 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지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上藥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증, 나병, 압통,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경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체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을 構築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옵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하고자 하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보유)
- 자연산삼(문상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